

Latin American Culture

문화예술

다비드 산티안의 작품에 나타난 전유와 풍자

홀리오 세사르 아바드 비달

다비드 산티안(1968년 키토 출생)은 다양한 장르의 작품 활동을 전개하면서 제1세계의 점진적인 병커화를 다룬 독특한 파노라마식(40*200cm) 유화 시리즈 『경계』(2008-2013)를 비롯해 최근에는 안데스의 풍광을 담은 작품 시리즈를 선보였다. 산티안은 독특한 전유의 성격을 띠는 예술의 선례가 되고 있으며, 계획적으로 진행된 작품은 모국 에콰도르에 대한 풍자적 연대기를 지향하고 있다. 산티안이 전유를 활용하는 이유는 그 자신이 예술가이자 박물관지학자일 뿐만 아니라 회화 복원 전문가로서 에콰도르의 선대 예술에 정통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산티안은 2005년 페루 키토의 에키노시알 기술대학교에서 복원-박물관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식민시대 예술을 전유한 작품인 「조상」(2007년 작, 50*60cm, 목각, 은박, 은쟁반)은 에콰도르에서 성녀 돌로레스에 버금갈 만큼 대중적이고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아기예수를 모델로 삼고 있다. 식민시대에는 잠든 아기예수나 깨어 있는 아기예수의 성상을 재현하는 전통이 널리 퍼져있었으며, 보통 다채로운 색이 입혀져 유리관과 금칠된 나무 상자에 보관되었다. 에콰도르에는 상당한 표본의 아기예수 성상이 보존되고 있는데, 키토의 국립박물관과 식민시대 예술 국립박물관의 컬렉션, 메트로폴리탄 문화센터의 알베르토 메나 카마노 박물관에 보관된 컬렉션이 대표적이다. 아기예수 조각상은 나체의 모습으로 제작되지만 가정에서는 금태나 은태를 두른 천으로 옷을 입혀 보관했다. 중남미에는 아기예수 조각상에 옷을 입



「조상」(2007. 50*60cm. 목각, 은박, 은쟁반)

히는 전통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수상을 꾸미는 관습, 특히 옷을 입히는 관습은 경건하고 상징적인 행위가 되었다. 다비드 산티얀이 「조상」이라는 작품에서 나체의 모습을 조각한 성상학적 토대가 여기에 있다. 이 작품이 종교적 에피소드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라면 ‘야곱의 꿈’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도 있다. 식민시대 회화에 재현된 성상은 베엘에서 야곱이 꾸는 꿈(창세기 28장 10-19절)에 대한 것인데, 그 꿈에서 하느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 일러준다(산티얀은 키토의 산 프란시스코 박물관에서 두 가지 버전의 「야곱의 꿈」을 봤다고 술회한다). 베엘은 히브리어로 ‘신의 집’을 의미한다. 산티얀은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 이 테마를 전유하여 출세주의에 대한 사회적 풍자로 활용한다.

산티얀은 “나는 야곱의 꿈과 야곱의 다리를 통해 행운이든 부정한 방법이든, (「출세주의자」라는 작품에 보이듯) 아침꾼이 되든 혹은 상속을 받든, 수단을 가리지 않는 출세주의를 그려냈다”고 밝힌 바 있다. 산티얀이 언급한 ‘아침꾼’이라는 말은 스페인 한림원의 사전에는 속어로서 “아침하거나 비굴한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산티얀은 「출세주의자」라는 제목



「출세주의자」(2007. 키토의 메트로폴리탄 문화센터)

으로 2007년 키토의 메트로폴리탄 문화센터에서 열린 ‘세계의 축’이라는 전시회에 작품을 설치하였다.

「출세주의자」는 목재 구조물로서 계단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모든 계단이 구두닦이용 솔로 덮여 있다. 이로써 구두에 광을 내는 행위는 권력에 굴종하는 태도에 대한 메타포이자 키토와 라타쿱가에¹⁾ 있는 교도소 수감자가 실제로 그런 일을 했음을 가리킨다.

전유는 메타담론과 변증법적 도구로서 예술과 정치의 관계를 반영하는 특권적 수단이다. 산티안의 전유는 주로 권력자의 합법화 메커니즘에 문제를 제기한다. 산티안은 에콰도르의 현재와 현대사에 대한 논쟁에 과감히 뛰어든다. 에콰도르 정치사는 요인암살(1875년 가브리엘 가르시아 모레노 암살), 혁명(1895년 엘로이 알파로의 국가수반 등극), 에콰도르의 정의로부터 도망친 대통령들(임기를 8개월도 채우지 못한 압달라 부카람이나 1998년 대통령이 됐으나 2000년 하야한 하밀 마우아드 등을 비롯해 부지기수다), 화폐개혁(마우아드 대통령은 2000년 수크레를 대신해 미국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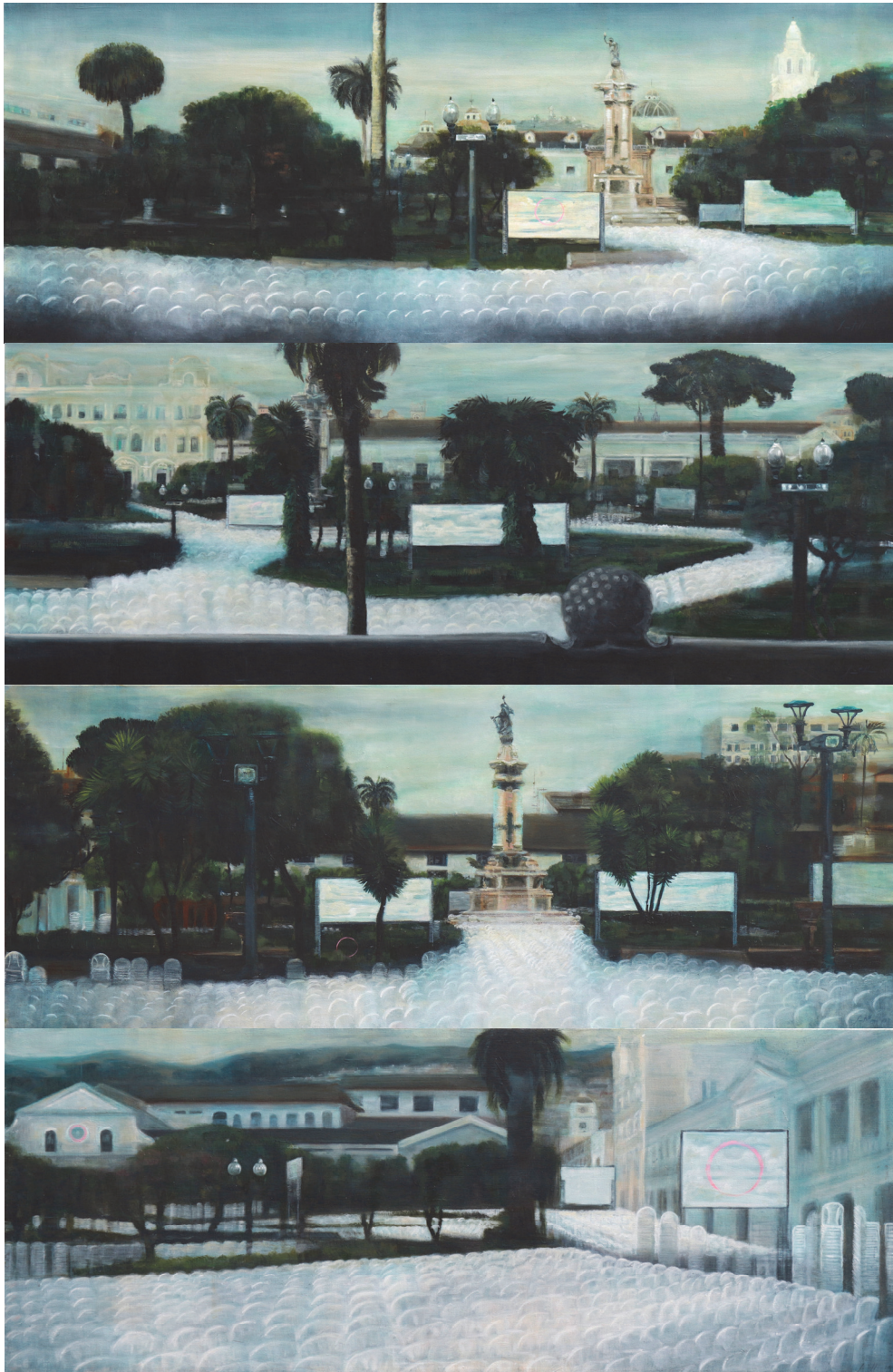
1) 라타쿱가는 에콰도르의 중심부에 있는 도시 이름이다-울긴이.



「나의 권력」(2013. 130*170cm. 유화)

리를 공용화폐로 수용) 같은 고통스러운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한 현재의 에콰도르에 대해 산티안은 권력자가 민주적인 선거로 부여된 특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그런 맥락에서 산티안은 최근 수년에 걸쳐 2007년 1월 대통령이 된 라파엘 코레아를 직접적으로 비판해 왔다.

「나의 권력」(2013년 작. 130*170cm. 유화)은 좌석에 앉은 코레아 대통령의 초상이다. 그 뒤로 서있는 다섯 명의 남성은 19세기의 관례에 따른 망자의 호위병이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검은색 군복에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장갑을 끼고 있고, 코레아는 에콰도르 대통령 휘장을 두르고 있다. 공허한 배경의 집단적 초상이라는 점도 독특하지만 이 작품의 가장 두드러진 독특함은 묵시록적 분위기를 풍긴다는 데 있다. 4개의 의자 다리가 문어발처럼 생긴 돌기 모양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산티안의 다른 작품에도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한데, 다른 작품에서는



연작 「붉은 원」(2011-2013년 작. 47*122cm. 유화)



「카발라」(2011. 170*130cm. 유화)

주인공은 없고 빈 의자만 있다. 예를 들어, 타원형의 독특한 작품인 「정치 권력」(2014년 작. 67*54cm. 유화, 양가죽)이 그렇다.

연작 「붉은 원」의 네 작품은(2011-2013년 작. 47*122cm. 유화) 1982년 에콰도르 중앙은행이 프랑스에서 입수한 작자 미상의 19세기 작품을 전유한 것이다. 이 연작은(69*85cm) 대광장(오늘날의 독립광장), 성당(남서쪽), 대통령궁(북서쪽), 대주교궁(북동쪽), 시청(남동쪽)을 화폭에 담고 있다. 현재 시청 자리는 새로운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데, 애초에는 16세기에 세워진 건물이 19세기 말에 해체되었다. 그 후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이 들어섰다가 1960년에 해체되고 현재의 건물이 들어섰다. 산티아고 단일한 형식으로 구성한 이 작품에는 야외에서 대중적인 행사를 할 때 사용하는 하얀 플라스틱의자만 가득할 뿐 참석자가 없다. 산티아고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매주 텔레비전에(채널 사바티나) 출연하여 대국민 대화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떨어져있고 국민과 다른 지평에 있는 외톨이 대통령



「오프사이드」(2012. 160*120cm. 유화)

을 그려내고 있다. 더불어 이 네 작품에 그려져 있는 붉은 원은 권력자를
을 가리킨다. 국민과 거리가 먼 권력자는 산티안의 작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875년 가브리엘 가르시아 모레노 대통령이 대광장에서 칼에 찔려 암살당했다. 당시에 그곳에 있던 사진작가 라파엘 페레스와 훌리오 바스코네스는 피살된 대통령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²⁾ 또한 1875년 8월 9일 키토의 성당에서 치러진 장례식에서 의자에 앉은 모습으로 안치된 대통령의 사진도 찍었는데,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대통령과 동명이지만 두 번째 성이 다르다)는 1982년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에서 이 사진을 마술적 사실주의의 선구적 작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산티얀은 이런 사진을 전유하여 첫 번째 사진을 「카발라」와 「폭군이 죽다」라는 제하의 그림으로 그려낸다.

「카발라」(2011년 작. 170*130cm. 유화)에서 산티얀은 반듯이 누운 시체와 그 뒤로 불안한 모습의 사람들을 흑백으로 그려낸다. 시체를 기념비적으로 그린 「폭군이 죽다」(2011년 작. 170*130cm. 유화)는 「카발라」의 일부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시체의 상체만 담은 그림이다. 두 작품에서 부패한 시체의 손에는 누군가의 얼굴을 비치고 있는 거울이 들려있는데, 그 얼굴은 가르시아 모레노가 아니라 현 대통령인 라파엘 코레아의 얼굴이다.

산티얀은 페레스와 바스코네스의 두 번째 사진을 「오프사이드」(2012년 작. 160*120cm. 유화)라는 제하의 그림으로 그리는데, 이 그림은 죽었지만 살아 있다는 듯 의자에 앉아있는 가르시아 모레노의 사진을(9*6cm 명함판) 전유하여 창작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좀비가 그렇듯이 표면적인 질서 정연함에 내재된 위태로움을 숙고해야 한다는 전유예술의 의도를 담고 있다.

[이경민 옮김]

훌리오 세사르 아바드 비달 — 마드리드자치대학교(UAM) 문학박사. 현재는 에콰도르 쿠엔카대학교 인문대학 연구교수.

이경민 — 서울대학교 강사

2) 위키미디어에서는 이 사진의 연도를 1870년 훌리오 바스코네스의 사진(Báscones Julio, Präsident Gabriel García Moreno)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옮긴이.